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01期(2026.07.31) WWW.MINGHUI.ORG

한글판 1065호 minghui.or.kr



▲ 미국 동부의 2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워싱턴DC에 모여 박해 반대 집회와 퍼레이드를 열었다. 당일 밤, 수련자들은 링컨기념관 앞에 모여 연례 촛불 추모 행사를 가졌다.

주요내용

【해 외】 이스라엘·콜롬비아·크로아티아, 박해 반대 27주년 기념...

【수련】 ‘현대관념’의 행위는 왜 재앙이라고 하는가?

【수련】 왜 어떤 사람들은 다단계 수법에 쉽게 걸려드는가?

【문화】 목숨 걸고 군주 구한 병길, 남이 모르게 하고 자랑하지 않아

〈목 차〉

■ 해외종합

전세계 한마음: 이스라엘·콜롬비아·크로아티아, 박해 반대 27주년 기념… 중국대사관 붉은 깃발 내려	3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7

■ 중국소식

원난성 흥허주 수련자 양진후이, 납치 감금 20일 만에 박해로 사망 …	25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28

■ 수련교류

‘현대관념’의 행위는 왜 재앙이라고 하는가?	30
왜 어떤 사람들은 다단계 수법에 쉽게 걸려드는가?	37
공안의 심문에 직면했을 때 주의사항 알림	46
자녀를 바른 수련의 길로 이끌다	48
수구(修口)와 휴대폰 보안	63

■ 문화예술

목숨 걸고 군주 구한 병길, 남이 모르게 하고 자랑하지 않아	68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한마음: 이스라엘·콜롬비아·크로아티아, 박해 반대 27주년 기념... 중국대사관 붉은 깃발 내려

[명혜지창] 2026년 7월,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공산당의 탄압에 맞서 싸운 지 꼭 27주년을 맞는 시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 정의와 선함의 힘이 다시 한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각지, 아시아의 대만·한국·일본 각지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스리랑카, 남미의 콜롬비아와 브라질, 호주 각지와 뉴질랜드, 유럽의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아일랜드·헝가리·크로아티아·핀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불가리아 등에서 현지 파룬궁 수련생들이 거리로 나와 탄핵 반대 27주년을 기념하고 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 중국대사관에 붉은 깃발이 내려앉고, 각계는 “진·선·인”를 지지하다

7월 20일, 이스라엘 파룬궁 수련자들이 텔아비브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평화 시위와 촛불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드문 역사적 장면: 행사가 시작된 지 약 10분 뒤, 대사관 밖에 걸려 있던 중국공산당 깃발이 천천히 내려와 그날 밤 행사가 끝날 때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은 이것이 수년간 항의 시위를 열어 온 뒤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촛불 빛이 밤하늘을 비추어 순국한 동료 수련자들을 추모합니다.

·각계 명사들, 나서서 목소리: 이스라엘 학자 6명과 종교 지도자, 사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란대학교 부교수 야에르 세메시가 항의하며 “침묵과 억압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고, 전 장관 나탄 샤란스키는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은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지적했으며, “가족 선택” 단체 회장 마이클 푸아는 유대인은 체계적인 박해를 직접 겪어 왔고, 악에 맞서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따뜻한 변화: 텔아비브의 작은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진실의 날 행사에서 수련생들은 올해 현지 화교들의 태도가 더욱 친절해졌음을 발견했으며,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모국어로 진행되는 설명을 들으며 사실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7월 18일 텔아비브의 작은 ‘차이나타운’에서 지속된 박해 27주년을 맞아 진상 알리기 행사를 개최한 파룬궁수련자들

2. 콜롬비아 보고타와 메데인: 경찰은 진상을 파악하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다



2026년 7월 20일, 보고타의 콜롬비아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체 연공을 하는 파룬궁수련자들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의 파룬궁수련자들은 7월 20일 수도 보고타와 제2의 도시 메데인에서 각각 행동을 벌였습니다.

·수도 보고타의 평화로운 굳건한 지킴: 수련생들은 보고타 중국 대사관 밖에서 ‘파룬따파’의 주요 저서인 ‘전법륜’을 함께 읽고 수련합니다. 현지 경찰 몇 명이 상황을 확인한 뒤, 수련생들이 헌법이 부여한 평화적 집회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후 수련생들은 세븐번로로 가서 전단 약 2천 부를 배포했습니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의 진상 전달: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대규모 퍼레이드에서 수련생들은 가족 단위로 퍼레이드를 보러 온 시민들에게 진상 전단 약 5천 부를 배포했으며, 많은 시민이 잇따라 감사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3.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기자와 대중의 양심적 공명



2026년 7월 18일, 크로아티아 파룬궁수련자들은 수도 자그레브의 토미슬라프 국왕광장에서 박해 반대 27주년 행사를 했다.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서명하겠습니다”: 현지 주민 고든 씨는 현수막에 드러난 고문의 진상을 알게 된 뒤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자발적으로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을 친지와 지인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중국에서 살아 본 적이 있는 기자 출신 시민 몇몇도 자발적으로 앞으로 나와 서명해주었으며, 그들은 중국공산당의 박해가 얼마나 잔혹한지 잘 알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광장에 올려 퍼진 강한 공감: 마이크를 통해 ‘진선인’의 수련 원칙과 박해 반대의 호소가 전해지자, 원래 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많은 행인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귀 기울여 들었으며, 수련생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유럽·아시아·미주를 가로지른 이번 반중 공산당 박해 물결은 전 세계 파룬궁 수련자들의 박해 반대 의지와 각계가 파룬궁의 인권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음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학자 구트만의 말처럼, “냉담은 흔히 악의 가장 강력한 공범이 되며, 진리에 대한 확고한 헌신은 결국 승리한다. “중공의 이 27년에 걸친 박해는 마침내 세상의 각성과 ‘진선인’의 빛이 비추는 가운데 완전한 종말로 나아갈 것이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7월 23일, 미국 동부와 중부 지역에서 온 다양한 민족의 파룬궁수련자 2천여 명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모여 링컨 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연 후 박해 반대 27주년 퍼레이드를 개최해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 종식을 촉구했다. 미국 국회의원, 싱크탱크 전문가, 인권 및 종교 신앙 단체 대표, 그리고 전 NBA 스타가 이번 성원 행사에 참석했으며, 발언을 통해 미국 입법자들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해 박해에 가담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방 하원의원 팻 라이언이 집회 현장을 찾았다. “여러분이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가치관을 굳건

히 지키는 것은, 특히 현재의 격동적인 시기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지향하는 등대를 밝혀주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자신이 파룬궁 단체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파룬궁 보호법’을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중공에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즉, 파룬궁에 대한 그들의 심각한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 NBA 스타이자 저명한 국제 인권 운동가 에네스 칸터 프리덤가 집회에서 발언했다. “여러분에게 저 같은 든든한 아군, 즉 NBA 선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제 커리어를 잃었고 수백만 달러의 수입도 잃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여러분이 겪은 온갖 고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운동선수, 더 많은 배우, 더 많은 인권 수호자들을 이곳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정책 분석 연구 수석 책임자 커트 위스물리는 해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중국 정부의 끔찍한 박해, 여기에는 감시, 괴롭힘, 구금, 투옥, 고문, 초국가적 탄압, 나아가 박해로 인한 사망까지 포함되며, 이를 단호히 규탄해 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언젠가 중국의 파룬궁수련자들이 모든 종교나 신앙 단체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환경에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연공하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 대외 연락 책임자 카리나 립스만은 20여 년 동안 무수한 파룬궁수련자들이 평화로운 정신적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 구금, 고문, 투옥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해 왔다고 말했다. 많은 정부, 연구원 및 인권 옹호자들도 국가 주도로 양심수를 겨냥해 벌어지는 강제 장기

적출 혐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미국 양당의 여러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영상을 녹화하거나 서한을 보내 파룬궁을 성원하고, 중공의 박해를 받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깊은 동정을 표했으며,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중국 수련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중공의 죄책을 추궁하고 박해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토드 영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영상 축사를 발표해 중공이 종교 신앙과 기본 인권을 장기간 탄압한 것을 규탄하고, ‘파룬궁 보호법’과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미국은 인권을 수호하고 중공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인사와 그 가족들이 직접 중공의 박해를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이 겪은 고난에 깊은 동정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겪은 고난에 대한 나의 동정심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자 아칸소주 제2선거구 공화당 의원인 프렌치 힐은 성명을 발표해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공의 장기간에 걸친 파룬궁 박해, 장기적출 및 초국가적 탄압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를 규탄하며, 중공의 책임을 묻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 의원은 중공의 끊임없는 고압적인 박해에 직면해서도 파룬궁수련자들은 시종일관 평화, 자비, 진실의 정신을 유지하며 비범한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7월 21일 성명을 발표해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27년간의 지속적인 박해를 규탄하며, 미국과 기타 자유 국가들이 관련 책임 추궁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박해 책임자들은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일 스미스 의원은 의회 웹사이트에 성명을 발표하며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규탄했다.

7월 18일, LA 수련자들은 중공 영사관 앞에서 ‘7·20’ 촛불 추모 집회를 열고 각계에 박해 저지 및 초국가적 탄압 종식을 촉구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수련자들은 촛불을 들고 나란히 앉아 중공에 의해 박해로 사망한 중국의 수련자들을 애도했다. 현장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한 장 한 장 놓여 박해 속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기록했다. 중국 사회민주당 주석 류인취안(劉因全)은 이날 현장을 찾아 파룬궁수련자들을 성원했다. 그는 먼저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창시자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했다. 그는 파룬따파가 세계로 널리 전해져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져다주었다고 여기며, 만약 파룬따파가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면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8일, 미국 대(大)필라델피아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이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에서 집회를 열고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 27주년을 기념했다. 수련자들은 현수막 게시, 전단 배포, 서명 수집, 현장 연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폭로했고, 장기적출을 포함한 중공의 인권 유린 만행에 대중이 관심 가져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많은 시민이 진상을 알고 난 후 잇달아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깊은 동정과 지지를 표했다. 현장에서는 36명의 중국인이 깨어나 공개적으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성명했다.

7월 19일, 캐나다 밴쿠버 파룬궁수련자와 각계 인사들이 중국 영사관 앞에서 집회와 야간 촛불 추모식을 열고, 27년간 ‘진선인’ 신앙을 견지하다 중공의 박해로 세상을 떠난 파룬궁수련자들을 애도했다. 아울러 사람들에게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함께 종식할 것을 호소했다. 박해를 직접 겪은 파룬궁수련자와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온 여러 민주 인사들이 집회에서 발언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중공의 잔혹한 파룬궁 박해를 규탄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자유를 가져야 하며 이는 어떤 정부의 시해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독재 정치도 영원히 자유를 이길 수 없고 어떠한 거짓말도 영원히 진상을 덮을 수 없다며, 진상이 목격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7월 19일, 캐나다 퀘벡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몬트리올에서 ‘7·20’ 반박해 27주년 집회를 열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자행해 온 박해를 폭로하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박해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수련자들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 3개 국어로 연설하며, 중공이 27년간 자행해 온 부당한 감금, 고문, 강제 세뇌 및 장기적출 등 만행을 폭로했으며, 이를 들은 현장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7월 20일 전 연속 두 주말 동안 브라질 파룬궁수련자들은 수도 브라질리아 시티파크(City Park)에서 공법 전시, 진상 알리기 및 박해 반대 서명 활동을 개최했다. 많은 시민이 걸음을 멈추고 파룬따파를 알아보고 파룬궁수련자들이 겪은 박해 진상을 경청했으며, 박해 반대 서명지에 서명하며 지지했다. 청년 레오나르도는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생체 장기적출 범행을 폭로한 전시판을 보고 즉시 서명지에 서명하며 지지했다. 그는 말했다. “이런 사악함은 전 세계인의 양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

7월 16일, 스위스 파룬궁수련자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앞 제네바 호숫가에서 집회를 열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 27년에 항의했다. 18명의 각급 정계 인사들이 영상이나 서한을 보내 파룬궁의 박해 반대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들은 스위스 연방의회 상원의원 마우로 포자, 카를로 소마루가, 스위스 연방의회 하원의원 다니엘 소르마니, 필리프 난테르모, 델핀 클로펜슈타인, 루디 베를리, 크리스티앙 당드레, 제네바주 대의회 의원 크리스티앙 플뤼리, 마샤 알리미, 뇌샤텔주 대의회 의원 블레즈 피바즈, 블레즈 쿠르부아지에, 다니엘 베르제, 리샤르 지공, 쥐라주 대의회 의원 니콜라 지라르, 프리부르주 대의회 의원 위베르 다플롱, 티치노주 대의회 의원 오마르 발리, 제네바 시의회 의원 파비엔 보, 파스칼 알텐바흐다.

제네바주 출신의 스위스 연방의회 상원의원 마우로 포자는 영상을 통해, 중공의 파룬궁 박해 27주년을 맞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박해받을 수 있는 모든 피해자, 특히 중공의 유혈 탄압을 받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이제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똑바로 인식하고, 각계각층,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7월 20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영국 파룬궁수련자들은 런던 도심에 위치한 주영 중국대사관 맞은편에서 단체 연공, 촛불 추도식 및 평화 시위를 열고,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국제사회가 함께 27년간 이어진 이 인권 재난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주말 이틀간 열린 대규모 퍼레이드와 집회에 이어 영국 파룬궁수련자들이 펼친 또 하나의 중요한 박해 반대 행사다. 영국 여야의 초당파 주요 정계 인사들은 중공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 특히 ‘생체 장기적출’ 등 극악무도한 반인류 범죄를 강력히 규탄했다. 보수당 인권위원회 공동 설립자이자 부위원장인 베네딕트 로저스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저는 맹세합니다. 중공의 박해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파룬궁수련자들이 ‘진선인’ 원칙에 기반해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절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우리 시대의 가장 비참하고 마음 아프며 또한 가장 분노를 자아내는 극단적으로 불공정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10여 년 동안 저는 이 일에 깊이 관여하며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의 고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국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세이머스 로건 하원의원은 지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하원의원으로서, 저는 오늘 이곳에 모여 이러한 원칙을 굳게 지키는 분들에게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파룬궁수련자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잔혹한 박해를 폭로하고, 그들이 직면한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이나 이념 때문에 차별, 위협 또는 박해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수호하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철저히 보호할 것을 요구하도록 영국 정부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7월 18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파룬궁수련자들이 주도(州都)인 뒤셀도르프 시내 보행자 거리에서 박해 반대 27주년 집회를 열었다. 수련자들은 단체 연공, 진상 알리기, 박해 사실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파룬따파와 파룬따파가 창도하는 ‘진선인’ 이념을 소개하고, 동시에 중공이 27년간 파룬궁에 가해온 체계적인 박해를 폭로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계 인사 4명이 보낸 성원 편지가 낭독됐다. 국회의원이자 기독교민주당(CDU)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대표인 쿤터 크링스 박사는 성원 편지에서 밝혔다. “인권이라는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는 개념 뒤에는 각자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기를 열망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깊이 느낍니다. 이는 기본 인권 중 하나이며 모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거나 위협당하거나 자유를 빼앗길 때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카를-요제프 라우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동보건사회부장관, 니콜 빌름스 뮌헨글라트바흐 시의회 사회보건평등위원회 위원장, 로코 빌켄 블로토 시장도 각각 성원 편지를 보내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했다.

7월 11일과 18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독일 바이에른주 주도 뮌헨 도심의 보행자 거리인 쟈들링어 거리(Sendlinger Straße)와 로트크로이츠 광장(Rotkreuzplatz)에서 2주 연속 토요일마다 27주년 박해 반대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중공이 27년간 이어온 박해와 파룬궁수련자를 상대로 한 생

체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했다. 이 행사는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았으며 시민들은 파룬궁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중공의 박해를 규탄하는 서명을 했다. 국회의원 요나스 가이슬러(Dr. Jonas Geissler)도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성원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 신앙, 정신적 수련 또는 내면의 신념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이 기본 원칙은 독일이나 유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타당하며 중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독교민주당원으로서 저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국가도 사람들이 단지 평화롭게 가부좌하고 신앙을 지키며 도덕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억압할 권리는 없습니다.”

7월 17일, 스페인 파룬궁수련자들은 마드리드 중국대사관 앞에서 박해 반대 27주년 집회를 열고 박해 저지와 종식을 촉구했으며,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현장을 찾아 성원하고 지지했다. 파룬궁수련자 대표는 중국어와 스페인어로 중공이 파룬궁을 상대로 27년간 이어온 박해를 폭로하며, 국제사회가 함께 이 인권 재난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7월 18일, 프랑스 서부 항구 도시 라로셀의 파룬궁수련자들은 라로셀 베르딩 광장에서 진상 알리기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중공의 파룬궁 박해 사실을 폭로하며 27년간 이어진 이 박해를 공동으로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7월 18일, 아일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더블린에서 박해 반대 27주년 퍼레이드와 집회를 열고 중공이 지속해서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진상을 알게 된 많은 시민이 서명으로 성

원하며 27년간 이어진 이 박해를 조속히 종식할 것을 호소했다. 파룬궁이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아일랜드인 베벌리(Beverly)는 그 자리에서 서명하며 박해 반대를 성원했다. 그녀는 피해를 보는 것은 파룬궁수련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박해를 못 본 척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나서서 진상을 알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7월 18일, 오스트리아 파룬궁수련자들은 빈 중심가 슈테판 광장에서 박해 반대 27주년 행사를 열고, 연설과 방송을 통해 행인들에게 파룬궁의 기본 상황과 27년간 중공이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가한 잔혹한 박해를 상세히 소개했다.

7월 18일, 20일과 25일 노르웨이 파룬궁수련자들은 각각 수도 오슬로와 서부 도시 에게르순에서 박해 반대 27주년 시리즈 행사를 개최했다. 수련자들은 단체 연공, 평화 청원, 진상 알리기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중공이 27년간 지속해 온 파룬궁 박해 진상을 폭로하고 공동으로 박해를 종식할 것을 호소했다. 많은 시민이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알아보며 파룬궁수련자들이 평화롭게 박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했고, 인연 있는 사람들은 진상을 알아본 후 파룬따파수련에 들어오기도 했다.

7월 19일, 이탈리아 파룬궁수련자들은 로마, 피렌체, 메스트레 등 도시에서 반박해 2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진상 게시판과 부스를 설치하고 공법을 시연하며 진상을 알렸고, 중공이 27년간 지속하고 있는 박해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행사 기간, 지나가던 많은 시민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 및 장기적출 등 진상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파룬궁 박해 종식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잇따라

서명했다.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기울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인권 탄압을 저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월 20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이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펼치며, 27년간 지속된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수련자들은 소피아 국립 문화궁전 앞 정원 산책로에서 정보의 날 행사를 열고 대중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으며,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을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7월 18일, 헝가리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수도 부다페스트 시내의 성 이슈트반 대성당 옆에서 평화 집회를 열고, 박해 반대 27주년을 기념하며 대중에게 중공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잔혹한 박해와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했다. 저녁 무렵, 수련자들은 성당 앞에서 촛불 추모 행사를 열어 중국 본토에서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들을 애도했다.

7월 20일, 호주 캔버라 파룬궁수련자들은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촛불 추모회를 열고, 27년간 신앙을 지키다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들을 추모했다. 바람 속에서 촛불들이 고요히 타오르며, 진선인 수련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중공의 박해로 세상을 떠난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담았다.

7월 17일, 파룬궁수련자들은 시드니 시청 앞에서 중공 박해 반대 27주년 촛불 추모 행사를 열고, 중국에서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수련자들을 추모하며 각계에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관심과 종식을 촉구했다. 7월 20일, 파룬궁수련자들은 시드니 중국 영사관 건너편에서 지속적인 연공과 가부좌 형식으로 평화롭게 항의하며 각계에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관심과 종식을 촉구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이자 시드니 공과대학교 중국연구 부교수인 평충이(馮崇義)는 파룬따파에 대한 지지와 경의를 표하며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전 세계가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에 매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정곡을 찔러 지적했다. “중공 정권이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악한 정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그 사악한 본질 때문에 어떠한 이견을 가진 사상, 조직, 종교, 단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적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상과 조직을 박해하고 나아가 소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십 년간 박해를 겪고 있는 유일한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권의 사악함을 체계적으로 폭로한 것은 점점 더 많은 세계인과 국제사회가 각성하도록 촉구했습니다.”

7월 18일, 호주 퀸즐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브리즈번(Brisbane) 도심의 브리즈번 광장(Brisbane Square)에서 파룬궁 박해 반대 27주년 퍼레이드와 집회를 열었다. 중공의 지속적인 박해에 직면해 파룬궁수련자들이 보여준 평화롭고 이성적이며 의연한 모습은 갈수록 많은 국제사회와 시민들의 존중과 지지를 얻고 있다. 맬컴 로버츠 퀸즐랜드주 상원의원은 지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진선인’이라는 평화로운 원칙을 따르는 수련자들이 겪는 심각한 불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이후, 저는 늘 그들의 확고한 지지자였습니다. 이 박해는 중국 국내외를 넘나드는 비극으로 무고한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파룬따파수련자들을 겨냥해 지속되는 만행은 깊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저는 중공이 이 잔혹한 박해를 즉시 종식하고 이런 인권 침해 행위

를 저지하며, 단지 신앙의 자유 권리 때문에 수감된 모든 인사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파룬궁을 확고히 지지하고 양심과 인류 존엄이라는 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서 여러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7월 18일, 호주 멜버른 시내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앞, 파룬궁 수련자들은 7·20 박해 반대 27주년 집회를 열었다. 티베트, 베트남 및 위구르 단체의 여러 커뮤니티 대표들이 현장에 참석해 성원하며, 중국공산당(중공)이 지속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고 초국가적 탄압을 하는 것을 규탄했으며, 박해를 종식하고 부당하게 감금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행사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해 진상을 알게 했고, 박해 종식을 지지하는 청원서에 서명하게 했다. 빅토리아주 베트남 커뮤니티 회장 응우옌 팡 주이(阮維光)도 다시 현장에 와서 파룬궁수련자를 성원했다. 그는 20여 년 전 파룬궁수련자를 알게 된 이후부터 파룬궁 수련이 사람의 심신에 유익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좋은 공법이 오히려 중공의 박해를 받는 것은 “공산당이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종교를 믿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7월 17일과 20일, 호주 남호주 지역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주 의사당과 빅토리아 광장에서 각각 집회와 촛불 추모 행사를 열었다. 현지 정계 인사들이 집회 현장에 참석해 연설하며 파룬파의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에 찬사를 보냈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27년간 자행해 온 잔혹한 박해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공의 끊임없이 격화되는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했다. 남호주 입법회 전 무소속 의원 태미 프랭크스는 발언에서 말했다. “저는 시

종일관 ‘진선인’ 원칙을 굳게 지키는 수련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끊임없는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단호하게 신앙을 수호하는 데는 막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신앙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그녀는 또한 박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7월 21일 화요일,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수도 웰링턴(Wellington) 도심과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집회, 고문 시연, 퍼레이드 등 일련의 행사를 열고 중국에서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들을 애도했다. 수련자들은 도심에서 고문 시연을 열어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가하는 부당한 감금, 고문, 강제 세뇌 및 장기적출 등 만행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국회의원 헬렌 화이트는 집회에 찾아와 지지를 표했다. 그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파룬궁수련자가 과거 중국에서 고문과 박해를 받았고, 일부 가족들 역시 심각한 박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모두가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자신의 신앙과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위협이나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7월 19일, 말레이시아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쿠알라룸푸르에서 ‘7·20’ 반박해 27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단체 연공, 평화 집회, 촛불 추모 등 방식을 통해 중공의 지속적인 27년 박해 종식을 촉구하고 박해로 목숨을 잃은 파룬궁수련자들을 추모했다. 많은 행인이 중공의 파룬궁 박해 및 생체 장기적출 등 진상을 알아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 인권 박해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여겼다.

일본 파룬궁수련자들은 각지에서 일련의 행사를 개최해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중국에서 잔혹하게 박해받고 있는 진상을 알렸다. 동시에 수련자들은 27년간 신앙을 지키다 중공에 의해 박해로 사망한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을 애도하며 즉각적인 박해 종식을 촉구했다. 7월 20일 오전, 도쿄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주일 중공 대사관 앞에 와서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영문과 일어로 된 ‘파룬궁 박해 중지’ 및 일어로 된 ‘파룬따파—심신에 유익한 기공 수련법’ 등의 현수막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며 공동으로 박해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7월 17일, 일부 오사카 파룬궁수련자들은 주오사카 중공 영사관 앞에 와서 평화롭게 항의하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박해 종식을 촉구했다. 7월 18일, 일부 나고야 파룬궁수련자들은 나고야 중국영사관 앞에서 평화롭게 항의하며 박해 종식을 촉구했다.

7월 25일 저녁, 대만 북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을 지키다 중공의 박해로 숨진 중국 대법제자를 숙연하게 애도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정계 인사, 의료계 전문가, 변호사, 학자들이 잇따라 발언하며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라는 반인류 범죄를 규탄했고, ‘초국가적 탄압 반대’ 등 입법을 추진해 공동으로 박해를 종식하고 인권과 자유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세상 그 어떤 도리도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과 민주주의 국가를 함부로 박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공의 박해와 위협에 직면해 우리는 진선인의 정신으로 하나로 뭉칠 것입니다.” 타이베이시 의원 장원제(張文潔)는 단호하게 말했다. 장원제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해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말하며, 커뮤니티에서 진선인을 알리고 아이들에게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와 생체 장기적출

진상을 이해하도록 교육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함께 노력해 하루빨리 박해를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체주의 폭력은 육체를 파괴할 수 있을지언정 영혼과 인류의 선량한 가치는 영원히 파괴할 수 없습니다!” 마이샹(馬依翔) 대만기진(台灣基進) 사무총장은 집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이샹은 중공이 장기간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고 심지어 생체 장기 적출까지 자행한 것은 이미 반인류 범죄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공의 파룬따파 박해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며, 그 전체주의 마수가 ‘초국가적 탄압’, 디지털 감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등 악법을 통해 해외와 대만으로 뻗어나가 전 세계를 감옥과 감방으로 만들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정부와 국제사회가 붉은 침투를 적극적으로 막아낼 것을 촉구하며 중공 전체주의 정권이 와해되는 그날까지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5일 무더운 여름 오후, 타이베이, 타오위안, 신주, 먀오리 등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타이베이 신이구에 모여 ‘7·20’ 박해 반대 27주년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퍼레이드는 타이베이 시청 광장에서 출발해 스푸로, 쑹가오로, 쑹런로, 쑹서우로를 따라 행진하며 도시의 여러 주요 랜드마크를 거쳐,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박해 종식과 신앙의 자유 수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 원자난(자이, 윈린, 타이난)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은 각각 타이난 공원, 중정 공원 및 후웨이 포대희관 앞 광장에서 촛불 추모 행사를 열어 신앙을 굳게 지키다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들을 추모하고, 사회 각계에 27년간 지속된 이 체계적인 박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타이난시 시의원 주정쉬안(朱正軒)은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라며, 파룬궁은 진상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준다고 밝혔다. 타이난시 시의원 차이샤오웨이(蔡筱薇)는 이곳에는 항의의 목소리가 없고 평화롭고 상서로운 분위기만 느껴지지만, 선의 힘은 거대해 멀리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난시 시의원 선전둥(沈震東)도 “‘진선인’ 세 글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매년 파룬궁 박해 반대 촛불 추모 행사에 참석해 온 류젠궈(劉建國)는 27년은 한 사람에게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며, 신념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매우 험난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지금까지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박해를 반대하고 진상을 전해, 세상 사람들이 중공의 사악함과 잔혹함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한 것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류젠궈는 신앙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파룬궁이 신앙을 견지하면 결국 신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는 입법원에서 장기적출 방지 등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실제 행동으로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있다. 그는 또한 중공의 국경을 넘는 진압의 마수가 이미 대만까지 뻗치고 있다며, 대만인들이 반드시 중공의 사악함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7월 20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한국 파룬궁수련자들은 서울광장에서 단체 연공, 집회 및 퍼레이드를 열고 27년간 이어진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평화적으로 촉구했다. 행사 중 한 문화계 인사가 공개적으로 성원을 보냈으며, 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고문 및 생체 장기적출 진상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고 파룬궁 박해를 조속히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허은도 수석 프로그래머가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연설에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며 사회 각계에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허 감독은 강조했다. “인권침해 앞에서의 침묵은 결국 가해 권력에 힘을 실어 주는 일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것은 중국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고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전체주의적 국가 폭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7월 기간, 인도네시아 여러 도시의 파룬궁수련자들은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시리즈 행사를 열어 중공이 파룬궁을 상대로 27년간 지속해 온 박해를 알리고, 끊임없이 고조되는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했다. 7월 19일, 덴파사르(Denpasar)의 레논 광장(Renon Square)에서 열린 평화 집회는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이들은 사진을 찍고 진상을 알아봤다. 많은 사람이 현수막과 패널을 읽은 후 박해 종식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현장에 참석한 인권 변호사 와얀 아디(Wayan Adi)는 발언 중 말했다.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박탈할 수 없는 기본 인권입니다.” 그는 파룬궁수련자들이 평화적으로 박해에 반대하는 노력을 굳건히 지지한다며 말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곳곳이 나서서 박해 종식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윈난성 홍허주 수련자 양진후이, 납치 감금 20일 만에 박해로 사망

[명혜망](윈난성 통신원) 윈난(雲南)성 홍허(紅河)주 거주(個舊)시의 65세 파룬궁수련자 양진후이(楊錦輝)는 2026년 4월 10일 가족과 함께 외곽으로 여행을 떠났다. 고속철도를 타고 멍쯔(蒙自)시로 돌아오던 중 그녀는 갑자기 카이위안(開遠)시 철도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어서 홍허주 구치소에 감금됐다. 불과 20여일 후인 5월 3일, 가족은 비보를 접했다. 양진후이가 구치소에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구치소 “심근경색 응급처치 실패” 주장, CCTV에는 세탁 중 쓰러지는 장면만 나와, 가족 부검과 진상 요구

5월 3일, 통지를 받고 구치소로 달려간 가족은 양진후이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처치를 했으나 실패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비통해하던 가족은 CCTV 영상 확인을 요구했고, 양진후이가 구치소 안에서 빨래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만 보았다. 가족은 부검을 요구했으나 현재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가족은 현장에 있던 양심적인 경찰을 포함한 정보원들에게 양진후이가 구치소 안에서 겪은 실제 상황을 밝히기 위해 더 많은 정황을 제공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신념 견지해 장기적인 박해 받아: 징역형 선고, 공무원 해고, 연금 대우 박탈, 생활 단절돼

양진후이는 원래 주민센터 공무원이었는데, 파룬궁수련 후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심신에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그녀는 여러 차례 납치돼 세뇌반(전향반)으로 보내져 강제 세뇌를 당했다.

- 2012년 2월 24일: 거주시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공안에 납치됨.
- 2012년 7월: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받고 윈난성 제2여자감옥에 감금됨.
- 2015년 1월 23일 출소 후: 부당하게 공무원에서 해고되고 모든 급여와 연금 대우를 박탈당해 생활 수입원이 완전히 끊김.

생활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선을 권하는 편지, 신소(형사 재심 청구), 고소장을 작성해 성(省), 시(市) 법원, 검찰원, 성 정부, 성 위원회 조직부 등 기관에 보냈고, 멩쯔시, 거주시 정법위(政法委)와 국보에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2024년 다시 납치돼 “더 이상 신소와 고소를 쓰지 말라”는 협박받아

2024년 7월 27일, 양진후이는 다시 거주시 국보, 정법위 등 직원들에게 납치돼 거주시 구치소에 13일간 감금됐다가 8월 8일에 풀려났다. 이 기간에 610, 국보 직원들은 그녀에게 분명하게 협박했다. “앞으로 다시는 신소와 고소를 쓰지 마라. 또 쓰면 구치소에 다시 가둘 것이다.”

그러나 신소와 고소는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 권리이며, 시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도 누린다. 양진후이는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하려 했지만,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감시와 박해를 받았다.

2026년 4월 다시 납치돼, 경찰 “상부 통지로 계속 그녀를 주시 감시했다” 주장

4월 10일 이틀 전, 양진후이는 가족과 함께 스린(石林)으로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고속철도 안에서 그녀는 카이위안시 철도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상부의 통지를 받고 계속 그녀를 주시하고 감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녀는 멩쯔시 차오바(草壩)진에 있는 흥허주 구치소에 감금됐다.

20일 후, 그녀는 의문사했다.

부록: 윈난성 박해 현황 참혹해, 수천 명 납치·감금·징역형 선고 받고 최소 54명 박해로 사망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 1999년 7월부터 2024년까지 윈난성에서 최소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 2527명의 파룬궁수련자(연인원 6230명)가 납치, 가택수색, 감금당했다.
- 1015명(연인원 1434명)이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54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로 사망하거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양진후이의 사망은 27년간 지속된 이 박해 속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극이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헤이룽장성 쑹야산시 파룬궁수련자 류후이쥬(劉慧菊) 할머니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중국공산당(중공)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 경찰은 계속해서 그녀를 감옥에 가둘 수 없었다. 하지만 2025년 7월 31일, 83세의 나이로 휠체어를 탄 노인을 경찰은 끝내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강제 납치해 수감했다. 이후 9개월 동안 그녀는 네 차례나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2026년 5월 7일, 84세의 류후이쥬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랴오닝성 다렌시 65세 파룬궁수련자 위춘샹(于春香)은 2026년 3월 4일 오전에 다렌시 시강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와 베이징제 파출소 경찰에 의해 집에서 납치됐으며, 이후 다렌 야오자 구치소로 이송돼 감금됐다. 5월 12일 그녀는 간징쯔 검찰원에 의해 법원에 불법 기소됐고 7월 23일 간징쯔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했고 3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일으킨 이후 그녀는 납치, 불법 판결, 감금을 당했다. 이번은 두 번째로 4년형의 박해를 받았다.

상하이 파룬궁수련자 황자위안(黃嘉源), 천천(陳晨)은 장쑤성 창저우시 공안국 우진 분국에 의해 성(省) 경계를 넘어 납치돼 불법적으로 감금되고 모함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됐다. 최근 황자위안은 불법적으로 3년형을, 천천은 불법적으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창저우시 여성 파룬궁수련자

1명도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산둥성 랴오청시 개발구 파룬궁수련자 구홍잉(顧紅英)은 2025년 11월 4일 저녁, 랴오청시 동청 파출소 경찰이 집으로 난입해 납치해 반년간 감금당했다. 2026년 6월 17일, 등창푸구 법원은 구홍잉을 상대로 부당한 재판을 열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구홍잉은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았고 4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판사는 변호사의 무죄 변호 내용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며 법적 절차와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다.

안후이성 우후시 파룬궁수련자 장통샹(張同香)은 2025년 8월 현지 경찰에게 납치돼 우후시 구치소에 1년 가까이 감금됐다.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장통샹은 허페이시 창평 감옥으로 끌려가 계속 감금돼 있다.

충칭시의 72세 파룬궁수련자 후카이쥘(胡開均)은 ‘진선인’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4년여 전 중공 법원에 의해 5년형의 부당한 선고를 받았다. 그녀의 남편은 생활이 불가능해 평소 후카이쥘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후카이쥘은 6월 8일 완저우구 법원에 의해 강제 수감돼 박해를 받았고, 그녀의 남편은 이후 주민센터 직원들에 의해 양로원으로 보내졌다.

‘현대관념’의 행위는 왜 재앙이라고 하는가?

글/ 일언(一言)

[명혜망]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한 가르침에서부터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대관념에 노출되며,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신의 사상과 행위가 현대관념에 주도되는 것을 모두 아주 정상적으로 느끼며, 질겁하지 않고 매사에 노심초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홍음6》에는 총 61수의 노래가 있는데, ‘현대관념’이 32회나 언급됐다. 즉, 거의 절반의 노래가 ‘현대관념’이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을 일깨우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관념 행위는 상서롭지 못하고’, ‘현대관념으로 눈을 미혹하지 말지니’, ‘현대관념 행위 쪽으로 나가지 말지니 명리정(名利情)은 하늘로 돌아갈 때 가져갈 수 없다네’ 등이다.

왜 사부님은 대법제자와 수련자들에게 이처럼 거듭 일깨워주시는 것일까? ‘현대관념’의 행위는 과연 어떤 표현과 근원을 갖고 있을까? 왜 ‘현대관념’이 하늘로 돌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일까?

이 주제는 매우 방대하므로 오늘은 간단히 몇 마디만 해 탐구와 고찰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1. 현대관념과 전통관념의 핵심 모순 대비

현대관념과 전통관념의 핵심적인 대비는 본질적으로 선과 악의 대비다.

하늘로 돌아가고 원만해 공을 이름에 대해 말하자면, 사부님은 우리에게 ‘속인 중의 좋은 사람’부터 시작해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최종적으로 속세를 초월한 좋은 사람(우주 특성에 동화된 부처, 도, 신)이 돼 하늘로 돌아가는 목적을 달성하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과 가족,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이다.

분명한 것은 속인 중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하늘로 돌아가는 출발점(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아님)으로 삼으려면, 먼저 ‘속인 중의 좋은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길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올라가야 하며 지름길은 없다.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발점이 되는 속인 중의 좋은 사람의 평가 기준은 중화 5천년 유가, 불가, 도가의 정수(씨꺼기가 아님)로 이뤄진 도덕적 품성이며, ‘진선인(眞·善·忍)’ 가치관이 세속 사회에 체현된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중공)이 몇 세대에 걸친 중국인에게 주입한 거짓, 악, 투쟁 체계와는 천양지차다.

2. 왜 현대관념의 행위가 재앙인가?

현대관념은 오늘날에야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은 고대부터 뿌려졌다. 단지 오늘날 인류 사회의 환경이 그것이 미친 듯이 확산하기에 더 적합할 뿐이다. 그것들은 변화무쌍해 사람들이 방어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짝이 트고 뿌리를 내렸으며, 멀리받고 부정당하며 비판받던 것에서 개인과 사회에 보편적으로 수용되기까지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쳤다.

현대관념은 흔히 ‘자유, 권리, 자아실현’이라는 그럴듯한 기치를 내걸고, ‘욕망 방종’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위장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안일한 향락’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것’으로 위장한다. 이러한 위장성이야말로 그것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해악을 입으면서도 스스로 바른 법과 바른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현대관념은 사람을 시류에 편승하게 하고 명·리·정의 수렁에 빠지게 해, 결국 사람이 된 초심과 하늘로 돌아가는 궁극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게 한다. 수련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재앙이 이보다 더 클 수 있겠는가?

3. 선악의 효과에서 ‘현대관념’과 ‘전통관념’ 구분하기

‘현대관념’을 식별하고 배제하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이 ‘전통관념’인지 알아야 한다.

효과 면에서 볼 수 있다.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관념은 모두 전통적인 것이다. 전통관념은 ‘내가 가정, 사회, 단체에서 (질서 있는) 위치와 (본분에 속하는) 책임을 다했는가, 내 언행이 선에 부합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한다는 마지노선에 부합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반면 ‘현대관념’의 효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이게 하며, 사상과 행위가 갈수록 악해지게 만들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악이고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갈수록 모르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관념의 수법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이러한 독약과

암세포를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심오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어쨌든 ‘모든 변화는 그 근본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편안함을 좋아하고 수고로움을 싫어함’, ‘안일을 탐함’, 이와 연관된 ‘인맥에 의존함’, ‘지름길을 택함’ 등은 효과만 봐도 식별할 수 있다. 이것들은 사람에게 게으름과 악을 향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모두 현대관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통관념은 ‘근면함이 서투름을 보완하고 손발이 부지런해야 한다’, ‘부족한 새가 먼저 난다’, ‘고생을 겪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토끼와 거북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컸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착실한 것을 본분으로 삼고 인생 성공의 초석으로 삼으라고 가르쳤다.

《좌전》에서는 ‘민중의 삶은 근면에 달려 있으니, 근면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다. 이는 사람은 반드시 지속적인 노력과 노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입지를 다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전통관념은 ‘근면함’을 처세의 근본으로 삼는다. 《상서》에서 ‘하늘의 도는 근면함에 보답한다’라고 말한 바와 같다. 이는 사람이 스스로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유지하고 단체에 자리 잡는 올바른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통관념은 또한 극기복례(자율), 즉 개인의 욕망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반대하고, ‘극기(명·리·정에 대한 욕망을 자제하고 안락을 탐하는 본능을 억제함)’를 주장하며, ‘고난과 수고로움을 견디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창한다.

전통관념에서 강조하는 ‘자강’ 역시 현대관념 행위 중의 ‘허영’, ‘자기 과시’, ‘과장과 추켜세움’이 아니다. 《주역》에는 ‘하늘의 운행은 건실하니 군자는 이로써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군자(속인 중의 좋은 사람)가 천도 운행의 끊임 없는 굳건함을 본받아, 환경의 순조로움이나 역경에 관계없이 늘 적극적으로 향상하고 영원히 게을리하지 않는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절대 개인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면 ‘시비를 가리지 못함’, ‘선악을 구별하지 못함’, ‘명·리·정에 대한 갈망을 방종함’, 이것들은 오히려 현대인이 문화적 기반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이는 중공의 세뇌 주입이 낳은 결과이며, 일종의 정신적 장애이자 문화적 폐기물이다.

오직 법을 스승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진선인’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함의와 이 함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향후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일, 특히 갈등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 이를 자신의 언행을 지도하고 바로잡는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다.

사실 태산으로 통하는 가파른 돌계단처럼, 시련과 고생이야말로 사람이 수련해 하늘로 돌아가는 하늘 사다리다. 상대방의 비위에 맞추고, 아첨하고,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상대를 치켜세워 망치며,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등 속인이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오히려 피를 보지 않고 사람을 망치는 혼한 방식이다.

맺음말

밤이 깊어 고요해지고 번잡함이 사라졌을 때 이성적으로 자신을 관찰해 보기 바란다. ‘어떤 환경에서 나는 더 선하고 더 순수해졌는가, 아니면 더 악하고 교활해졌는가? 어떤 관념이 나를 선하게 만들었고, 또 어떤 관념이 나를 악하게 만들었는가?’

한 사람의 인격 기준과 시비 선택이 다른 사람의 행위 및 이익과 무관할 때(서로 얹혀 있는 것이 아님), 감히 ‘진선인’을 자신이 선악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만 비로소 세속의 명, 리, 정의 통제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만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순수하고 고상해질 수 있으며, 수련의 길을 바르게, 그리고 멀리 걸어갈 수 있다.

부록:

《홍음6》에 ‘현대관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32곳의 구절 일람:

1. 현대관념 행위는 마(魔)의 무리가 되게 하고
2. 현대관념 행위는 자신을 해치고 있고
3. 현대관념은 깊은 못의 진흙탕
4. 현대관념 행위는 마(魔)에 속아 넘어간 것
5. 현대관념으로 눈을 미혹하지 말지니
6. 현대관념 행위는 죽음의 길이다
7. 현대관념 행위는 인생의 실패라네
8. 현대관념 행위는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네
9. 현대관념 행위의 기괴한 형해(形骸)를 버리고

10. 현대관념 행위는 사람의 품모를 바꿔버린다네
11. 현대관념 행위는 상서롭지 못하고
12. 현대관념 행위는 낭떠러지로 걷는 것이고
13. 현대관념 행위는 항로를 잃고
14. 현대관념 행위는 이미 위험한 지경으로 향했고
15. 현대관념 행위는 이성(理性)이 고장 난 것이라네
16. 현대관념은 신과 동떨어지고
17. 현대관념 행위는 독한 암(癌)
18. 현대관념은 정념을 가로막고
19. 현대관념 행위는 마성을 띠고 있고
20. 현대관념은 독한 암이고
21. 현대관념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 선량과 전통의 길을 지키면 구원받는 신의 길 빛나가지 않으리
22. 현대관념 행위 쪽으로 나가지 말지니 명리정(名利情)은 하늘로 돌아갈 때 가져갈 수 없다네
23. 현대관념 행위는 귀신의 땅으로 기어가는 것
24. 명(名)과 정(情)은 바람에 흩날리는 흙먼지 현대관념 행위가 하늘 길을 막고 있네
25. 현대관념 행위가 사람 모습을 개변하고 있나니
26. 현대관념 행위는 마도(魔道)로 가는 것이고
27. 현대관념 행위는 험한 벼랑 향해 가는 것

- 28. 현대관념 행위는 마(魔)와 함께하는 것
- 29. 현대관념 행위는 자신을 우롱하는 것
- 30. 현대관념은 자신을 해친다네
- 31. 현대관념 행위는 자기를 상하게 한다네
- 32. 현대관념은 부패한 것이거니

왜 어떤 사람들은 다단계 수법에 쉽게 걸려드는가?

글/ 노수련자

[명혜망] 다단계(다단계 판매 또는 불법 자금 모집 변형 다단계) 집단에 깊이 빠져 정신 통제를 받고 자주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탐욕스럽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이는 다단계 조직이 사회학, 심리학, 인지과학 및 고압적 통제 기술(Mind Control / Coercive Persuasion)을 치밀하게 운용한 결과다.

아래에 ‘왜 쉽게 빠져드는가’와 ‘왜 확신하게 되는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심층 분석했다.

1. 왜 어떤 사람들은 다단계 집단에 쉽게 빠져드는가?

다단계 조직은 처음부터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드물며, 대신 현실 생활에서 피해자의 핵심적인 고통(Pain Points)을 정확히 포착해 극대화한다.

1) 심리적, 감정적 취약기

많은 가담자는 들어가기 전 실업, 창업 실패, 실연, 사업 실패, 낯선 곳에 갇 도착해 고립무원을 느끼거나 무거운 빔을 지는 등 인생의 밑바닥을 갇 경험한 상태다.

이때 다단계 조직은 ‘목적성이 매우 강한 따듯함과 소속감’(속칭 ‘온정주의’ 또는 ‘가족 문화’)을 제공한다. 신입이 언제 도착하든 항상 누군가 열정적으로 마중을 나가고 안부를 물으며 세심하게 보살피 주어, 그들 내면의 공허함과 고독을 신속히 채워준다.

2) 재무적 자유와 계층 역전에 대한 불안

현대 사회는 경쟁 압박이 커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다. 다단계 조직은 ‘단기간에 거액의 부 창출’, ‘낮은 진입 장벽, 무위험’이라는 성공 스토리로 유혹하며 운명을 바꾸길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는다.

3) 지인 사회의 신뢰 보증(지인이 지인을 속임)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 친척, 친구, 심지어 연인, 멘토의 유혹을 받고 간다. 추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종종 처음의 경계심을 내려놓고 ‘그가 설마 나를 해치겠어’라고 생각하며 치밀하게 짜인 함정에 발을 들인다.

4) 인지적 사각지대와 맹목적 숭배

일부 사람은 비즈니스 논리와 기초적인 재무 지식이 부족해 ‘국가 정책’ 같은 거시경제 개념이나 듣기에 ‘거창한’ 말 등 그럴싸해 보이는 금빛 간판에 쉽게 현혹된다.

참고로 수련자 중 각종 유명인, 능력자, ‘특수한 관계’,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 등을 고도로 숭배하고 추종하는 마음과 욕망은 비이성적이고 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초래하지만 이런 수련자는 항상 있었다. 중국이든 해외든 때로는 다단계 조직과 거의 같은 결과를 낳아 세상 사람들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오해하게 만들며, 객관적 결과가 자신의 주관적 상상과 정반대로 나타난다.

2. 왜 다단계 방식으로 통제된 후, 확신에 차서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잃게 되는가?

다단계 소굴에 들어간 후 피해자는 체계화되고 산업화된 ‘세뇌 및 정신 파괴 공정’을 겪게 된다.

1) 환경 장악 및 물리적 격리(기존의 사회적 현실 파괴)

휴대폰을 압수하고 인신 자유를 제한하며,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격리된 사람이 강제에서 자발로, 제한에서 경계와 적대감으로 변하게 해 결국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시킨다.

피해자는 일부 말들에 영향을 받아 원래의 가족, 직장, 친구 관계에서 강제로 벗어나게 된다. 정보가 차단된 환경에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와 가치관은 조직이 일방적으로 주입한 것이며 외부 친척과 친구들의 객관적인 조언을 잃게 된다.

2) 고강도 정보 폭격과 ‘세뇌식 수업’(인지 변화)

매일 장시간 폐쇄적인 ‘업계 분석’이나 ‘성공학 교육’을 진행한다. 이런 고강도의 릴레이식 주입은 반복의 힘을 이용한다. 하나의 거짓말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바람잡이)이 굳게 믿을 때, 뇌의 이성적 방어선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3) 수면 박탈과 피로 폭격(생리적 파괴)

많은 다단계 조직은 뻘뻘한 일정, 심야의 긴 대화 또는 교대로 ‘사상 공작’을 배치해 피해자를 장기간 수면 부족과 정신적 피로 상태에 빠뜨린다. 뇌가 극도로 피로할 때 비판적 사고 능력은 크게 떨어지고 암시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4) 집단 극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피해자 자신을 제외한)이 조직원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열정에 차 구호를 외치며 자신이 ‘곧 큰돈을 번다’, ‘어떤 어떤 이득을 얻었다’는 기쁨을 나눌 때 거대한 심리적 암시가 형성된다.

인간에게는 강력한 동조 심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웃고, 열광하고 있다면 그 속에 고립된 개인은 강렬한 죄책감과 자기 의심을 느끼게 된다. ‘내 문제인가? 왜 다들 이 사업 기회를 알아 보는데 나만 못 알아보지?’

5) 매몰 비용 효과와 자기 합리화

피해자가 일단 회비를 내거나(대개 빌린 거액이다) 이미 몇 달의 시간을 투자했다면 ‘매몰 비용’이 강력한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

만약 이때 이것이 사기임을 인정하면 자신이 어리석고 친척과 친구를 배신했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런 거대한 심리적 고통(인지 부조화)을 피하기 위해 뇌는 자기 기만을 선택해 ‘이것은 다단계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 프로젝트·위대한 사업·가장 행운의 선택이다’라고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며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6) 감정 조종과 도덕적 납치

조직은 ‘큰돈 벌기’를 ‘부모님께 효도하기’, ‘은혜 갚기’, ‘가문의 운명 바꾸기’ 등 당신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목표와 결부시킨다. 다단계를 의심하는 것은 ‘불효’, ‘이기적임’, ‘그릇이 작음’으로 해석된다. 이런 도덕적 족쇄는 피해자가 의심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다.

만약 수련자 내부에서 조성한 폐쇄적인 환경이라면, 보통 사람 속에서 얻기 힘든 명예, 이익, 정, 직위, 후광, 층차 제고, 특혜, 원만 등으로 인간 사회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수련 면에서도 미성숙하며 중국(해외 사회의 운영과 해외 수련 환경에 완전히 낯선)에서 자란 수련자들을 유혹할 것이다.

3.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라, 사고를 멈추지 마라

보통 사람 사회에서 다단계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계획된 심리적 살인이다. 그것은 인간의 따뜻함과 성공에 대한 갈망을 미끼로 삼아 환경 격리, 고압적 세뇌, 휴식 박탈, 동료 압박, 도덕적 납치를 통해 개인의 독립적 인격과 이성적 사고를 한 걸음씩 붕괴시키며, 결국 피해자가 폐쇄된 정보의 고치 속에서 허위의 현실을 ‘굳게 믿게’ 만든다.

사회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것인데, 수련자 중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속이고 기만하며 대법제자를 통제하고 망치는 것이 아닌가?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통 사람 중의 좋은 사람부터 시작해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경지로 오르라고 하셨다. 《전법륜(轉法輪)》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시 5천 년 문명 전통 이념이

인정하는 보통 사람 중의 좋은 사람이 자동으로 된다고 하신 적은 없다. 왜냐하면 정과(正果)는 닦아서 얻는 것이며 각자(覺者)는 남이 끌어올려 줘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착실하게 고생하고 시달리며 온갖 현대 관념을 제거하고 무신론의 해악을 제거하며,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의 가악투(假·惡·鬪) 주입을 씻어내야만 타락한 세속적 상태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 중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성적으로 법을 이해하고 법에 동화하며 법으로 자신을 대조해 자신이 낮은 층차에서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 법으로 자신을 씻어내 더 높은 층차로 승화해야 한다. 이렇게 순환을 반복해 법이 당신에게 허용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즉 당신의 천국 고향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름길을 가려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생각이며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 속에 살면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진 수련은 어떠하겠는가?

수년간 명혜망에는 수련자가 사람을 따르지 말고 법을 따라야 한다고 일깨워 주는 교류 문장이 계속 있었지만,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는 현상은 여전히 시장성이 있다. 이는 수련하는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 것과 관련이 있고, 지식 수준(학력이 아님)이 천차만별인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가정교육의 좋고 나쁨과 관련이 있고, 개인의 사상 관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외적 요인이 어떠한 기왕 법을 얻어 수련하고 있고, 이미 그 속에 빠져 자신과 외부의 연락을 단절시켰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자.

결론: 자신을 지혜와 단절시키지 마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다들 ‘소크라테스 문답법/질문법’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한 답이 진짜 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장군이 “나는 용기 있는 장군이다”라고 말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저의 무지를 용서하십시오. 용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군이 “적은 많고 아군은 적더라도 여전히 과감히 싸우는 것, 이것이 용기다”라고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한 후 계속 질문할 것이다. “그것은 용기의 사례이지 용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아군 병사들이 필연적으로 대량 희생되지 않겠습니까?”

장군: “하지만 모르는 일이다, 만약 이긴다면……”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한다. “그렇다면 용기란 충동적인 모험입니까?”

여기 이르러서야 장군은 생각 없이 답하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진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나, 나도 원래 모험이 정말 용기 그 자체인지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소크라테스 같은 질문의 지혜를 사용하면 타인의 ‘다단계 폐쇄세뇌’에 갇히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수련 성취에 관하여: 당신은 묻는다. 대법 수련이 정말 이렇게 폐쇄적이고 세상과 격리되어야만 수련해 낼 수 있는가? 법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오, 사부님께서는 《유럽법회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 그 오랜 수련방법은 과거 기타 종교를 포함하여 그는 수련인으로 하여금 좋지 못한 사상이 반영되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인위적으로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수도원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절로 갔으며 또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산굴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단절했다. 동시에 그는 장기간 깊은 정(定)에 들어야 했다. 그의 이런 입정(入定)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이런 입정(入靜)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2007년 뉴욕법회 설법》 “대법제자가 오늘날 한 이 일체는, 당신이 무슨 항목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당신 자신이 거리에 나가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든지, 아니면 영사관 앞에 앉아 사악을 폭로하든지 간에, 당신은 모두 자신을 수련하고 법을 실증하는 동시에 세인을 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법제자가 하는 것이다. 보기에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모두 위대하며 모두 대단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각종 업종, 각종 환경은 바로 당신들의 수련장(修煉場)이기 때문이다.”

《사부의 가족을 대함에 정확히 하라》 “사부의 현세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는 문제에서도, “사람 마음”이 표현되는 두드러진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때로는 사부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듣지 않으면, 그래도 당신이 나의 제자인가? 사부의 가족을 좋게 대하든 나쁘게 대하든 모두 그들의 수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당신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특히 부당한 칭찬은 사부의 가족을 해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부의 가족을 사부처럼 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금품 등의 물건을 준다.” “제멋대

로 돈을 준 그런 사람들, 이는 남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고 있다. 당신은 사부의 가족과 사부를 더럽히고 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사부의 가족에게서 뭔가를 좀 얻으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련 중에서 지름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별별 우스운 사람 마음이 다 있다.”

주의할 점은 소크라테스 질문법이 묻는 것은 일 그 자체이며, 묻는 대상은 남이 아닌 자신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사고하는지는 그 사람의 일이다. 수련이란 자신의 그 마음을 닦는 것이고 어떤 모순 속에서도 법으로 자신의 심성을 높이는 것이다.

당신은 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 만약 폐쇄된 환경만이 옳다면, 다른 모든 폐쇄되지 않은 항목들은 다 틀렸다는 말인가? 법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해한 법의 뜻이 정말 이 뜻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다단계 수법으로 남을 세뇌시키는 사람들, 그녀들이 한 말이 실현될 수 있는가? 정상적인 경영 관리가 있는가? 실적 평가 기준이 있는가?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가?

대법 수련은 주의식(主意識)이 반드시 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주의식은 진정한 진아(眞我)이지 보통 사람 속의 관념이나 사상업력(思想業力)이 아니며, 더욱이 남이 당신에게 주입한 듣기에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옳고 그름을 알아볼 수 있는 관념이나 말이 아니다.

공안의 심문에 직면했을 때 주의사항 알림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은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을 극력 발전시키고 이용해 중국 민중을 향한 극단적인 감시와 체제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갖 위협과 공갈, 유인과 기만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각종 생체 정보를 수집해 AI 감시 기술을 테스트하고 훈련하며 완성하는 용도로 쓴다. 중공 전체주의 국가의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민중에게 가져다주는 고난은 더욱 깊고 무거워진다. 수련생으로서 반드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고, 자신의 생체 정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른바 자칭 ‘경찰’이라는 자들에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중국 수련생들은 마땅히 최대한 빨리 위챗, 사기방지센터 등 중공 감시 소프트웨어를 삭제해 자신과 수련, 그리고 대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이런 종류의 교란을 만난다면 즉시 그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적 직무 유기 행위가 불법 구금죄, 타인 주거 불법 침입죄, 직권 남용죄, 직무 유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공직자에게는 ‘법에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곧 금지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악을 억누르기 위해 몇 가지 간소화된 법률 조문을 인용할 수도 있다(외워두는 것이 가장 좋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헌법’ 제5조 “모든 법률과 법규는 헌법에 저촉해서는 안 된다 (헌법 지상 원칙).” 제35조 “국민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제36조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제41조 “국민은 어떠한 국가 기관과 직원 및 그들의 행위에 대해 비판, 건의, 소청, 고발, 신고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했을 때는 마땅히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2조 “수사 인원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인, 기만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입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공 공안은 자주 유도 심문, 기만적 자백 강요, 위협과 공갈 등의 방식으로 이른바 ‘증거’를 획득하는데, 이는 무효 증거다. 유효한 증거는 반드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 즉 증거의 세 가지 성질이 하나로 일치함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조항에 근거해 무효 증거임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입증 책임은 공안국과 검찰원의 소관이므로, 만약 공안이 당신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직접 그에게 관련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또 한 가지, 수련생이든 가족이든 공안을 마주했을 때 당신이 한 어떤 말(고개를 끄덕이거나 젖는 것 혹은 침묵을 지키는 것 포함)이라도 그들이 증거로 인용할 수 있다. 실제로는 많은 국민이 이 법조항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괴롭히며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공안의 심문을 받거나 조서를 작성할 때, 어떤 죄명으로 구금하는지 반문하거나 그 죄명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대답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조서의 화제를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한 구체적 행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이 증거를 날조하는 데 협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서를 그들을 심문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증거 사슬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 말을 고의로 누락한 곳이 없는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법률 조문,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공의포럼(公義論壇)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 대법제자와 경찰의 관계는 예로부터 박해하고 박해받는 관계가 아니라 제도하고 제도받는 관계다. 대법은 자비롭지만 위엄이 함께 존재한다. 개인적인 이해로는, 진정한 자비란 속인이 이해하는 것처럼 늘 굽실거리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팔방미인형 호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생명의 생사존망이 달린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 대법의 위엄 있는 일면을 보여주고, 정법 수련자를 박해한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어 그들이 사악에 계속 협조해 악을 저지르려는 생각을 단념하게 하는 것만이 세상 사람을 진정으로 제도하는 것이다. 보살은 대자비한 각자(覺者)지만 동시에 금강역사(金剛力士)처럼 분노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는 자비의 또 다른 이면의 발현이다. 지옥의 각종 형벌과 인간 세상의 업보도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여금 죄악을 씻어내고 업력을 갚아 최종적으로 본원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녀를 바른 수련의 길로 이끌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거리에서 한 모녀가 대중 앞에서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고 세련된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에게 방학 때 밖에서 쏘다니지 말고 집에 들어오라고 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무한한 감회가 들어 옆에 있던 똑같이 중학교 3

학년인 암전하고 착한 딸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네가 다행히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 말법 말겁의 십악독세(十惡毒世)에서 우리도 어찌면 저 불쌍한 모녀와 같았을지도 몰라!” 딸도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수련생 자녀가 어린 나이에 두꺼운 책(주: 학교 입시 교육)을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수련생이 자녀에게 공을 좀 들여 아이를 이끌어 ‘전법륜(轉法輪)’을 더 많이 법공부하게 하고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한다면 불법(佛法)의 무량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나타나 학업 성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지난날의 어린 수련생이 속인으로 전락해 학업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이성 문제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어른 수련생에게 권하곤 했습니다. “매일 자녀를 위해 여가 시간을 조금 내어 함께 ‘전법륜’을 한 단락이나 한 절씩 읽고, 심성 수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며, 자녀를 위해 정념을 많이 발해주는 것이 당신이 자녀에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믿음직합니다. 밖에서 돈을 들여 학원 같은 데 보내지 말고 이런 바르지 못한 풍조를 부추기지 마세요. 자녀를 파룬따파 수련의 길로 이끌어 오랜 세월 지속해 나간다면, 자녀 마음속에 늘 ‘진선인(眞·善·忍)’ 우주대법이 담겨 자율적이고 자각하며 자성(自省)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밝고 청춘의 활력이 넘칠 것이며 이런 아이는 당신이 그들을 위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도 한결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 수련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찬성했습니다.

두 명의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저는 이 방면의 경험과 교훈이 있으며 깊은 체득과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 안에서

30년 가까이 수련해 왔는데 이제 저의 수련 체험을 써보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자녀를 파룬따파 수련의 길로 이끌었으며 어떻게 바른 정법 수련의 길을 걸어왔는지 말입니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첫째 아이를 수련으로 이끌다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마침 사악이 대법을 광적으로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수련하며 저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참고할 만한 이런 부류의 교류 문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저는 파룬따파의 주요 저작인 ‘전법륜’을 읽어주지 않았고 사부님의 설법 녹음도 틀어주지 않았으며, 그저 매일 요람에 있는 아이를 향해 사부님의 ‘홍음(洪吟)’을 한 번씩 암송해 줬습니다. 나중에 보니 아이가 몇 살이 됐을 때 제가 사부님의 ‘홍음’에 나오는 어떤 시든 몇 번만 읽어주면 금방 외웠습니다. 사부님의 대법 법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린 심령 속에 기억된 것입니다.

매번 과일을 사 와서 사부님께 공양한 후 저는 아이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한 몫씩 가져다드리게 해 사심 없는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줬습니다. 이렇게 지속하자 겨우 1~2살 된 아이는 어떤 물건이든 남과 나누길 좋아하고 혼자 독차지하지 않는 좋은 습관이 들었으며 전혀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느 집 아이가 우리집에 놀러 오든 아이는 한 사람당 과일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모두 사부님께 공양했던 과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오직 아이만을 위해 과일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산 것은 모두 사부님께 공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일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을 보면 그때 제 마음에는 다소 아까운 마음도 들었고, 자기 몫을 좀 남겨두지 않는다고 아이를 탓하는 마음도 약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이 겨우 2~3살 먹은 아이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아이가 자기 물건을 나누는 것을 전혀 막지 않고 사심 없고 순결한 동심이 마음껏 드러나게 해줬습니다.

저는 매번 과일을 사서 사부님께 공양해 사부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아이는 이를 눈여겨보고 마음속에 기억했습니다. 아이의 모방 능력은 유난히 강했습니다. 때로는 누가 주었던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준 라면 과자라도 아이는 가장 먼저 사부님을 떠올려 라면을 부순 뒤 한 움큼 쥐어 사부님의 법상 앞에 공양하고는 사부님 드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모방하며 저를 따라 사부님을 존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몹시 감회가 일었습니다. 어른이 하는 대로 아이가 따라 배우니 저부터 반드시 잘해야 하며, 제가 잘하지 못해 아이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악의 박해로 인해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우리는 사악에게 박해받거나 밖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고 아이를 어떻게 수련으로 이끌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공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 학업 성적이 매우 나빴고 50점을 맞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조차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1학년에 한 번 더 다니게 하기로 했고 더는 아이를 방치해

서는 안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저는 아이에게 매일 ‘전법륜’ 한 단락씩을 읽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단락의 법을 읽게 하려고 저는 매번 아이에게 달콤한 말을 많이 하며 달래야만 아이가 겨우 다 읽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야 ‘전법륜’을 처음으로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진정으로 수련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제 마음이 몹시 시달렸습니다! 조금한 마음, 지적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화내고 싶은 마음, 임무를 완수하려는 마음 등 수많은 사람 마음이 수시로 드러났고 저는 이를 하나하나 닦아 없앴습니다. 이 첫 ‘전법륜’ 읽기는 단지 아이가 법공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제가 법공부를 하며 마음을 닦고 심성을 높인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는 수시로 아이와 교류하며 제가 어떻게 대법 법리에 따라 처세하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이는 저와 그다지 교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부님의 ‘전법륜’은 아이의 순결한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2학년이 됐을 때 저는 아이에게 매일 스스로 ‘전법륜’ 한 단락을 읽으라고 했는데, 아이는 말을 매우 잘 들어 뜻밖에도 끝까지 견지해 냈습니다. 이는 아이의 근기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온화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고요함을 좋아하고 이상할 정도로 얄전해 할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랬습니다. “남의 집은 아이 하나 태어나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우리집은 아이가 없는 것처럼 집안이 늘 조용하구나.”

아이는 태어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병을 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몸이 불편할 때는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법륜’을 읽거나 밖으로

나가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상 스티커를 붙이면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전법륜’을 배웠기에 아이의 머리는 마치 한순간에 트인 것처럼 학업 성적이 일취월장했고 이후 계속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매우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과정을 마쳤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순조롭게 직장 생활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독립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어떠한 불량한 기호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의 학업, 직장, 생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사부님의 무한한 법력이 아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자주 법공부를 했기에 사부님의 대법 법리는 일찌감치 아이의 마음에 깊이 심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아이는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임해 맡은 바 일에 성실하고 묵묵히 헌신하며 개인의 득실을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각별히 효도하고 마음씨가 선량해 직장 생활에 다닌 뒤로 자주 저희에게 옷을 사주는데 아무리 비싸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집안 물건도 사들였는데 특히 제 둘째 아이를 위해 각종 학용품 사주고 자주 둘째 아이 교육을 도우며 우리 부모가 신경 쓰지 않게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이 모든 것이 사부님의 은덕이자 대법의 위력입니다. 사부님의 크나큰 불은(佛恩)에 무릎 꿇어 은사님께 절을 올립니다.

2. 둘째를 이끌고 반본귀진의 대도를 걷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거의 사악이 해체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성격이 정반대인 생명으로, 하나는 정적인 것

을 좋아하고 하나는 동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둘째를 가졌을 때의 일로 기억하는데 저는 선명한 꿈을 꿔했습니다. 식물이 약간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 지대에서 아주 예쁜 꽃 두 송이를 봤는데 한 송이는 금빛이었고 또 한 송이는 보랏빛이었습니다. 그 색깔이 너무나 아름다워 지금까지도 기억하는데 몹시 화려하고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손에 아이 하나를 안고 다른 손으로 아이 하나를 이끈 채 그 사막 지대를 걸어 나왔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그 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수련생의 제안으로 첫날부터 매일 번갈아가며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틀어 아이에게 들려줬습니다.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낮에는 거의 자지 않고 밤에는 어른처럼 아주 조용히 휴식을 취했으며,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잠들고 날이 밝으면 제시간에 깼습니다.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을 때는 매일 적어도 한 번씩 선원 디스크(당시에는 중국에서 선원 디스크 소지가 허용됐습니다)를 봤는데, 아이는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화려한 선원 단원들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가 겨우 2살이었을 무렵, 하루는 제 머릿속에 문득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본문을 읽어주시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영감이 번뜩였습니다. ‘아, 나도 이런 방법으로 둘째를 데리고 ‘전법륜’을 읽을 수 있겠구나! 법공부도 하고 글자도 익히니 얼마나 좋은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둘째를 곁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지금 우리 곁으로 환생해 올 수 없었던단다. 엄마는 이미 언니가 있었거든. 지금 사악이 여전히 박해하고 있어서 엄마도 너를 돌볼 에너지가 별로 없어. 하지만 네가 이미 왔고 우리집에

태어났으니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건자꾸나. 매일 엄마가 너에게 ‘전법륜’ 읽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렇게 네가 사부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엄마도 네 미래를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사부님께서 널 보살펴 주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뜻밖에도 둘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는 즉시 아이에게 법 읽는 것을 가르쳤고 첫째와 마찬가지로 매일 한 단락씩 읽었습니다. 당시 겨우 2살이라 너무 어렸기에 아이에게 ‘전법륜’ 책 한 권을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에게도 책 한 권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생각이 더 집중되고 법이 마음에 와닿게 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첫째를 이끌어 법을 읽혔던 경험을 둘째에게 적용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둘째를 데리고 한 번을 읽어줬습니다. 아마 둘째가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렸고 또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 매일 제 마음을 괴롭혔는데 어찌나 시달리게 했는지 아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첫째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로 기억하는데, 하루는 제가 둘째를 데리고 법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아이가 더는 계속 읽으려 하지 않았고 불쾌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확 화가 치밀어 아이에게 고함을 질렀고 아이도 지지 않고 저를 향해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 온 집안이 발각 뒤집혔습니다. 첫째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랑 동생이 법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 싸우는 거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몹시 부끄러웠으며 순간 사부님의 법이 떠올랐습니다. 사부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단속하는 데도 화를 내며 그야말로 떠들썩한데, 당신이 자녀를 단속한다 해도 그럴 필요가 없으며, 당신 자신은 진정 화를 내지 말아야 한

다. 당신은 좀 이지(理智)적으로 자녀를 교육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다. 작은 일마저 넘기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도 공이 자라게 하려고 생각하는가”(전법륜) 이것은 바로 저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즉시 냉정을 되찾고 둘째에게 사과했고 둘째도 안정을 찾아 계속해서 법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사랑해요.”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고 즉시 깨달았습니다. 둘째라는 이 생명이 보여준 비범함은 바로 명백한 일면이 저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 일면은 또 윤회 속의 업력에 좌우되기에 부모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 생명은 하늘로 돌아갈 가망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감사함을 표하는 둘째의 이런 언행은 이후에도 몇 번 더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어린 대법제자를 잘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함을 깊이 체득하곤 했습니다.

둘째가 아마 2~3살쯤 됐을 때 한번은 감기몸살이 난 것처럼 열이 났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이 곁에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지역 보건소로 데려가 주사를 맞히고 수액을 맞히려 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제게 말해주길, 보건소에 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 어른 3~4명이 붙잡아도 둘째를 누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기어코 주사를 맞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어른 몇 명이 누르지 못해 결국 주사를 맞히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다. 이 집 식구들은 다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는데 병이 자연스럽게 낫겠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몰래 웃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오묘함을 알겠습니까. 둘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사도 맞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지만 몸이 매우 건강합니다.

둘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법공부 팀의 단체 법공부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역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따라 차를 타고 시골로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며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저를 따라 시골에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람을 구하는 사명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산과 물 등 대자연 풍경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녀 셋이 매번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갈 때면 제가 운전, 발정념, 지형 관찰, 노선 숙지, 안전 작업 확보를 담당했고 첫째는 자료 배포를 맡아 진상 자료를 사람들 집 문고리나 창문틀에 걸어뒀습니다. 둘째도 걸을 수 있게 되자 자료를 배포하며 사람을 구하려 했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세 사람은 가급적 말을 하지 않고 엄숙하게 정념을 발하고 자료 배포에 임했습니다. 자료 배포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세 사람은 기분 좋게 대법제자가 창작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가 가장 편안하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내에 도착하면 아이들의 적극성을 북돋우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며 격려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다음에 시골로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아이들은 더욱 기꺼이 따라나섰습니다. 지금 회상해 보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끌고 정법 수련 길을 걸으며 진상 자료를 배포해 사람을 구하는 일은 제가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십수 년을 하루같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법공부하고 연공하며 정념을 발하고 진상 자료를 배포해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사람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넘쳐날 때는 가끔 정말 아이들을 단속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속으로 ‘법공부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배우는 사람이 얻는 거지’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사부님께서서는 늘 갖가지 방식으로 제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곁에 있는 어린 수련생을 반드시 잘 이끌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일깨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어린 수련생을 잘 이끈 교류 문장을 보게 되거나, 윤회 이야기 속에서 생명이 법을 위해 층층이 내려온 간난신고와 용기를 보게 되거나, 때로는 법공부를 하다가 문득 대법의 비할바 없는 소중함을 깊이 느끼게 돼 세상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의 재물을 주든 대법을 전해 아이 생명이 영원히 혜택받게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내심 있게 아이를 불렀습니다. “일어날 시간이다. 법공부하고 연공할 시간이 됐다.”

매일 등교하는 길에 저는 아이에게 ‘논어(論語)’를 한 번씩 암송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제 차에 타기만 하면 제 등 뒤에서 ‘논어’를 암송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운전에만 집중해 아이를 등교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루 또 하루, 한 해 또 한 해 대법의 씨앗이 아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진선인’ 우주 대법의 법리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아이를 좋아했고 친척과 친구, 이웃들은 모두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이때 저는 아이가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심성을 지켜야 한다고 이끌어줬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나 웃어른에 의해 공주나 도련님으로

오냐오냐 길러지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아이들의 착실한 수련 과정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중국의 입시 교육 탓에 요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모두 중국 국가 지도자의 비서처럼 밤낮으로 해도 해도 끝없는 숙제가 있고, 방학이 되어도 이 학원 저 특기반에 다녀야 합니다. 저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집안의 어린 수련생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학원에 가지만 대법을 수련하는 우리 아이들은 법공부를 하고 집안일 하는 법을 배운단다. 방 정리하기, 밥 짓기, 요리하기, 청소, 채소 다듬기, 빨래하기, 옷 개기 등등 말이다.” 사부님께서 “심성이 얼마나 높으면 공도 얼마나 높다”(전법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법을 잘 배우고 심성을 높이면 이는 곧 신의 사상이니 신은 큰 지혜가 있는데 외계인의 그깟 현대 과학 하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두 아이는 다 밥을 할 줄 알며, 첫째는 방학에 집에 돌아오면 제가 설날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느 해에는 설날 음식을 전부 첫째가 만들었을 때 매우 맛있었고 둘째는 지금까지도 언니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더욱 대견하게도 방 정리를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해 사람 기분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밥 짓기, 만두 만들기, 수제 칼국수 만들기 등 둘째는 모두 해내는데 이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터득한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과장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법 ‘진선인’ 법리의 지도하에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하여 불광(佛光) 속에 흠뻑 젖어, 부모가 신경 쓰지 않게 하고 시름을 덜어줘 끝없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대법에 감사드립니다.

3. 대법이 아이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다

십수 년을 하루같이 정성껏 아이를 이끌어 법공부하고 수련하게 하니 드디어 약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중학교 졸업 시험이 끝난 후 저는 둘째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며칠 놀다 왔습니다. 돌아온 후 제 사람 마음이 일어났고 법을 외우려 해도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마침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둘째(이미 오전 8시가 넘었습니다)를 깨워 말했습니다. “휴, 내가 마음이 너무 번잡해서 법을 외우려 해도 도무지 외워지지 않고 마음도 가라앉지 않는구나. 아까 네 아빠와 할머니가 한 말씀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한데 네가 어서 나와 교류 좀 하자.” 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옳게 했든 그르게 했든 상관하지 마세요. 핵심은 엄마가 이 일을 겪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움직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찾아내어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안으로 찾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외가에 가서 며칠 놀다 돌아왔을 때 법을 외우려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고 법도 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법을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썼어요. 마음이 고요하지 않더라도 법을 읽으려고 했고, 몇 소절을 읽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져 법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금방 외워졌어요. 엄마도 한번 해보실래요?” 말을 마친 아이는 엄숙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이 말에 몹시 충격을 받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깨달음에 충격받았고 아이의 자율성에 충격받았으며 대법이 아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뿌리내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인내심 있게 아이와 함께했던 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저는 대법의 무한한 법력에 더욱 충격받았고 사부님의 홍은에 더욱 충격받았는데 사부님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가 이토록 훌륭하게 수련해 낸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한마디 말은 30년 가까이 수련해 온 이 노제자인 저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게 만들었고, 저로 하여금 더욱 용맹정진해 자신을 빨리 잘 수련하고 사부님을 도와 더 많은 세인을 구해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졸업 시험 성적이 나왔을 때 아이의 성적은 온 집안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인들은 아이 성적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 성적이 거의 한 사람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슬프고도 불쌍한 일입니다. 친척, 친구, 동료를 포함해 제 아이의 성적을 아는 모든 사람이 다 탄복해 마지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이웃의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집에서 조용히 큰일을 내셨네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가려고 제게 돈을 얼마나 쓰게 했는지 아세요?” 그 집 아이 할머니가 일찍이 제게 말하길, 평소에 일대일로 보충 수업을 받는데 시간당 300위안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동료는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다니 거의 모든 과목이 만점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 몇 년 동안 저는 돈도 별로 못 벌었어요.” 그 동료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남들이 돈을 얼마나 벌든 이렇게 높은 점수를 살 수는 없어요! 그럴 가치가 있지요!” 그녀는 끊임없이 감탄했고 눈에서는 경탄의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루는 외출할 일이 있어 길을 가다가 이웃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숙한 사람이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 복을 모두 아이들에게 보냈구려.” 그녀는 우리 부부가 모두 파룬따파를 수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변 이웃들도 제가 시부모님께 각별히 효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제 속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제 능력이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사부님의 은혜입니다!

중학교 졸업 시험 성적이 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동네에서 신화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수련인이 수련하는 과정에서 공력(功力)이 올라가면 공능(功能)이 나오지만 공능은 단지 부산물일 뿐이듯, 아이의 성적도 수련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수련 길에서 저와 아이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으며, 오직 끈기 있게 법공부하며 마음을 닦고 연공하며 정성껏 세 가지 일을 잘해 초심을 바꾸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만 서약을 이행하고 사부님을 따라 천계의 진정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각종 어지러운 현상을 보고 십악독세 중에서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보며, 재앙이 겹친 지금의 사회를 보면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이끌어 파룬따파 주요 저작인 ‘전법륜’을 배우게 해 아이의 몸과 마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여명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법륜’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은사님께 무릎 꿇어 절을 올립니다!

수구(修口)와 휴대폰 보안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수구(修口)와 휴대폰 보안의 연관성에 대해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와 마주했다. 사존의 설법을 다시 복습하면서, 사람 구하기가 시급한 이 시점에서 수련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중시하고, 심성을 제고하며, 진실하게 수련하고 착실하게 수련해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1. 휴대폰과 전화 감시 시스템을 똑바로 인식하다

모든 수련생이 중국공산당(중공)의 감시를 받는 상황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이웃을 배치해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금은 중공이 수련생이나 수련생 가족 중 한 명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시(市) 공안국 감시용 대형 스크린에 수련생의 전화번호(유선 전화 및 휴대폰)와 그와 연락하는 모든 가족, 친구의 전화번호가 한꺼번에 줄줄이 떠서 도청과 녹음이 이뤄진다. 수련생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실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수련생과 가족의 실명 또는 비실명 전화번호 일체가 마찬가지로 시(현) 공안국 대형 스크린에 표시돼 도청당한

다. 일반적으로는 녹음 도청을 하지만, 필요할 때는 회선에 직접 연결해 실시간으로 도청한다(이때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의 귀에는 자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수련생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본인 실명 휴대폰만 도청당하고 가족의 휴대폰이나 비실명 휴대폰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점이다. 하지만 사실은 서로 연락이 닿기만 하면, 설령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모두 실시간 도청 범위(자동 도청)에 들어간다.

사존께서는 ‘각지 설법15-2018년 워싱턴DC법회 설법’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당신은 이 전화가 도청(監聽)되는 것을 아는가. 우리 몸에 지닌 전화기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매 하나가 모두 도청기이다. 중공이 그런 것을 듣는데, 거기에 앉아 당신이 일상사를 얘기하는 것을 듣는바, 그걸 아주 똑똑하게 듣는다. 매 한 명의 대법제자 그 핸드폰은 모두 도청되는데, 당신은 당신이 폭로되지 않았다고 하는가? 게다가 그 핸드폰은 아주 빨리 꺾이는데, 당신이 전화를 걸기만 하면 그 번호가 꺾이게 되며, 그런 후에 그는 도청시스템을 설정한다.” 휴대폰과 전화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정말이지 이렇게 작동한다.

휴대폰 도청은 소리를 수백 배 증폭해 녹음하거나 직접 도청하는 방식이라서, 수련생이 집에 들어간 뒤 자신이 쓰는 휴대폰을 집 안 다른 방에 둔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다. 집에 찾아온 수련생에게 문을 열어줄 때 서로 대화를 나누면 이미 노출된 것이다. 휴대폰을 집 안 어느 방에 두더라도 반드시 방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련생이 수련하지 않는 가족 앞에서 수련생들 사이의 일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말할 때, 설령 자신의 휴대폰은 멀리 두었다 해

도 가족이 몸에 지닌 휴대폰을 전혀 꺼리지 않는다면, 이는 가족의 휴대폰을 통해 사악에게 수련생들의 기밀을 알려준 것과 다름 없다. 하물며 수련생 본인도 종종 곁에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하니, 이렇게 무의식중에 자신과 다른 수련생들을 팔아넘기게 된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수련생 집에 가면 휴대폰이나 유심(USIM) 카드에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서(오차가 극히 작아 층수까지 명확히 추적됨) 행적이 모두 사악에게 파악되며, 사악이 상황을 똑똑히 파악하고 기회를 엿보아 박해할 틈을 주게 된다.

사존께서는 ‘각지 설법15-2019년 뉴욕법회 설법’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지금 당신들 몸에 지닌 모든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설비,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은 모두 도청기이다. 지금 대법제자에 대해 갈수록 흥미를 느끼는 건 중공사당뿐만이 아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많은 국가가 모두 당신들을 도청하고 있다. 당신이, 나는 일반 수련생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전화를 걸면 당신들이 말한 일상적인 이야기, 당신이 언제 장을 보고 밥을 먹는지도 그들은 모두 기록하는데, 당신, 이 사람의 전반을 분석하는 등등이다. 당신은 업체가 상업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는가? 역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다. 당신에 대해 이미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바, 당신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말이다.”

사존께서는 ‘각지 설법14-2016년 뉴욕법회 설법’에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의 도청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간첩과 정부뿐만 아니라, 누구든 마음대로 당신을 도청할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하다. 바로 이러한 일이고, 핸드폰을 끄든지 안 끄든지 마찬가

지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중공사당 거기에서도 듣고 있다.”

사존의 설법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착실히 수련했는가?

대법을 박해하는 감옥에서 수련생은 수감되자마자 신속히 감옥 교육과에 의해 영상 촬영을 당하며, 카메라 앞에서 이리저리 걸다니며 말하도록 강요받는다. 사악은 안면 인식, 음성 인식, 걸음 걸이 인식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정법위와 610은 감옥 검은 소굴에서 수집한 정보와 시(현) 공안국의 전화 감시 시스템을 통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다. 게다가 각지에 널려 있는 사악한 감시 카메라도 이에 협조해 감시하고 있다.

2. 착실하게 수련하며 수구하다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와 무신론 환경 속에서 살아온 수련생들은 여기서 말하는 수구 문제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다. 수련생들은 공안국에 가서 중공의 사악한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기회가 없기에 무신론의 영향으로 사악이 가족과 자신의 휴대폰을 도청해 박해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집 전화, 수련하지 않는 가족의 휴대폰 앞에서 거리낌 없이 수련과 관련된 일을 말함으로써 사악이 도청하기 쉽게 편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 수련생이 다른 수련생에게 자신이 아는 상황을 알려주었는데, 그 수련생이 가족(가족은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있음) 앞에서 자신이 들은 내용을 말했다면, 무의식중에 사악에게 그 내용을 노출한 것이다. 이 두 수련생 모두 수구하지 않은 문제

가 있는 것 아닌가?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닌가? 이로 인해 초래된 안전상의 위험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우리는 마땅히 수구에 주의해야 하며,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휴대폰 보안에 주의하지 않는 수련생이 있다면 서로 일깨워 줘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정체(整體)이므로 수련에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수구 문제는 반드시 진실하게 수련하고 착실하게 수련해야 하며, 진정으로 사존의 법에 따라 휴대폰 보안과 수구를 중시해야 한다. 이성적이고 또렷한 주의식(主意識)으로 수련해 당 문화와 무신론의 해악을 스스로 타파해야 한다.

수련생들이 서로 도와 대법의 요구에 따라 수구하고 휴대폰 보안 문제를 중시하기를 바란다.

개인의 깨달음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목숨 걸고 군주 구한 병길, 남이 모르게 하고 자랑하지 않아

글/ 소가(蕭歌)

[명혜망] 중화 전통문화에서는 겸손을 지극한 덕으로 여겼다. ‘시경(詩經)’에는 “저 사궐에 오만하지 않으니 온갖 복이 찾아오네”라고 적혀 있다. 노자(老子)는 “공을 이루나 그 공을 차지하지 않는다. 차지하지 않기에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위대한 공을 세우고도 바라는 바가 없으며 사심이 섞이지 않는 것은 초연한 경지다. 역사 속에는 덕을 근본으로 삼아 끊임없이 정진하며 공을 세우고도 오만하지 않는 고상한 수양을 보여준 현자가 확실히 존재했다.

‘한서(漢書)’의 기록에 따르면 병길(丙吉)(?~기원전 55년)은 노(魯)나라 사람으로 서한(西漢) 시기 대신이다. 사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시(詩)’, ‘예(禮)’를 배워 대의에 모두 통달했다.” 한 무제(漢武帝) 말년, 궁중에 태자를 무고한 원통한 사건이 발생해 태자와 관련된 사람이 모두 연좌돼 피해를 봤다. 태자의 손자는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역시 연좌돼 감옥에 갇혔다. 병길은 이 사건 심리에 참여해 태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속으로 알고 여러 차례 상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병길은 황증손(皇曾孫)이 어리고 의지할 곳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신중하고 충후한 여자를 보내 보호하고 양육하게 했으며 재차 감옥에 가서 살펴봤다.

누군가 그가 이 일로 화를 입을까 걱정해 거듭 그에게 권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은 피하기에도 바쁜데, 당신은 어찌해 여러 차례 태자를 위해 변호하고 또 그의 손자를 돌보는가?” 병길이가 말했다. “이것은 본래 원통한 사건인데, 하물며 황증손은 아직 갓 난아기인데 그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인덕(仁德)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네.”

훗날 무제가 중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 장안(長安) 감옥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고 말하자, 장안의 죄수들을 일률적으로 처형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사신이 밤을 새워 황증손이 있는 감옥에 도착했지만 병길은 사신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정색하며 말했다. “이 원통한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2년이 넘도록 결말을 짓지 못했고, 무고한 자는 더욱이 죽어선 안 되는데 하물며 갓난아기이겠는가?” 사신이 말했다. “당신은 어명을 어기고 따르지 않으니 너무 세상 물정에 어둡소.” 병길은 목숨을 걸고 사신을 막았다. 사신이 한무제에게 복명하자 무제는 “하늘이 시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하늘의 뜻이었다. 무제는 결국 병길을 추궁하지 않았고 아울러 천하에 대사면을 내렸다.

몇 년 후, 황증손 유순(劉詢)이 황제가 됐으니 곧 한선제(漢宣帝)다. 그러나 한선제가 즉위한 후 병길은 예전에 자신이 그를 보호해 준 공로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말하지 않아 조정에서는 그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선제도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뜻밖에도 수년 후 액정령(掖庭令, 궁녀를 관리하는 환관)이 상소문 한 통을 받았는데, 한 늙은 궁녀가 자신이 지금의 황제를 보호하고 양육한 공로가 있다고 상소한 것이다. 한선제는 이상하게 여겨 액정령에게 이 늙은 궁녀에게 연유를 물어보게 했다. 늙은

궁녀는 이 일을 병길이가 안다고 말했다. 액정령은 늙은 궁녀를 데리고 병길을 찾아갔다. 병길은 확실히 이 궁녀를 알고 있었고 병길은 “내가 확실히 예전에 당신에게 황증손, 즉 지금의 황상을 돌보게 했지만 당신은 오히려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 공로라고 할 것도 없소”라고 말했다. 이 늙은 궁녀가 아닌 다른 두 명의 궁녀야말로 황제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었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병길은 비로소 감옥에서 이 두 유모가 어떻게 공동으로 황증손을 부양했는지 하나하나 모두 털어놓았다.

이에 이르러 한선제는 비로소 병길이야말로 큰 재난에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감동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를 매우 존경해 병길을 박양후(博陽侯)로 봉했다. 만약 이 같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병길이 예전에 목숨을 걸고 군주를 구한 이 일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돌처럼 남이 모르게 묻혔을 것이다.

병길은 큰 공을 세우고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했으며, 도덕적 수양을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기고, 항상 자신을 수양하며 밖에서 추구하지 않았다.

병길은 본래 감옥의 법을 다루는 하급 관리였으나 나중에 ‘시경’과 ‘예경(禮經)’의 대의를 통달했다. 그가 승상(丞相)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관대함을 숭상하고 예의와 양보를 좋아했다. 그의 밑에서 일하는 관리 중 만약 뇌물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자가 있으면 병길은 곧 그를 장기 휴가를 보내고 끝내 추궁하고 조사해 처벌하지 않았다.

한번은 병길이가 외출했다가 마침 여러 사람이 난투극을 벌여 사상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다. 병길은 지나갈

때 오히려 묻지 않았다. 계속 앞으로 가다가 소를 쫓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소는 혈떡이며 혀를 내밀고 있었다. 병길은 수레를 멈추고 수행원을 보내 소를 쫓는 사람에게 ‘소가 몇 리를 걸었는지’ 물어보게 했다.

수행원들은 승상이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은 묻지 않고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는다고 여겼다. 이에 대해 병길이 말했다. “민중이 난투극을 벌여 서로 살상하는 것은 마땅히 장안현(長安縣) 현령(縣令)과 경조윤(京兆尹, 장안 일대를 다스리던 지방장관 직함)이 경계하고 추궁해야 하며, 연말에 다시 승상이 그들의 통치 실적의 우열을 심사해 황상에게 아뢰어 상벌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승상은 도로에서 현령과 경조윤의 직책 범위 안에 있는 일을 친히 묻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한창 봄철인데 소가 멀리 걷지도 않았는데도 더위로 혈떡이는 것은 바로 절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행여 국가에 어떤 피해를 줄까 두렵다. 승상은 음양의 조화를 관장하니 이것은 분수에 맞는 일이다.” 수행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에 비해 병길이야말로 ‘큰 틀(대체)을 알고, 삼가고 조심할 줄 안다[識大體, 有敬畏]’는 이 이치를 명백히 알고 있음을 보게 됐다.



▲ 2026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27주년을 맞아 이스라엘 파룬궁수련자들은 텔아비브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 앞에서 평화 시위를 하였고 밤에는 촛불 추모를 하며 지금까지 지속된 박해를 즉각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행사 기간 대사관 밖에 게양된 깃발이 이례적으로 내려갔고 밤새 올라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6명의 이스라엘 학자와 종교 지도자, 사회 인사들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평화적인 박해 반대 활동을 공개 지지하였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9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453만 0874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